

Bromamine산 시장반전 예고

95년 3/4분기 염료용 수요증가 ... 시장회복 불구 가격은 고전

반응성염료와 삼성염료의 중간체로 다량 사용되고 있는 Bromamine-Acid시장이 Non-벤지딘계의 환경친화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Bromamine-Acid 수급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4	1995	증감률
공 생 산	700	780	11.4
급 수 입	180	165	▽8.3
계	880	945	7.4
수 내 수	480	525	9.4
요 수 출	685	420	▽38.6
계	1165	945	▽18.8

자료> CRI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B-Acid시장은 94년과 95년초 산성염료와 최대시장인 반응성염료 시장이 위축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95년 3/4분기들어 이들 시장이 수출력 회복으로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B-Acid 수요는 태흥산업의 자가소비분을 포함 520톤으로 94년 480톤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현황을 보면, 12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보정밀이 95년초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 생산계획을 다소 낮게 잡아 95년말 현재 600톤을 생산했으며, 태흥산업은 생산능력 200톤가운데 180톤을 생산, 전량 자가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은 94년 가동률 50%에서 다소 회복된 것으로 95년 하반기 염료시장이 회복되면서 가동률 상승이 뚜렷히 나타나는 등 그동안의 정체상태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은 일본이 B-Acid 생산보다는 직접적인 반응성염료쪽에 치중하는 관계로 저가의 중국산만 유입돼 94년 180톤에 비해 15.1% 줄어든 165톤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판매현황을 보면, 국내의 유일한 판매기업인 삼보정밀이 600톤 가운데 180톤을 내수로, 70%에 해당하는 420톤은 EU와 독일·미국·일본 등지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돼 94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Acid는 전체의 90%이상이 염료쪽에 사용되고 있으며 10% 정도가 안료용 중간체로 쓰이고 있다. 염료 가운데는 반응성염료 블루쪽이 60%, 산성염료 블루쪽이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면에서는 정체국면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산의 저가공세 및 95년 상반기의 시장악화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94년 Kg당 14~16달러에서 95년12월 현재 13~15달러로 1달러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 3~4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계속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Acid의 최대 수요시장인 반응성염료는 95년 3/4분기(95년1~9월)들어 전년동기대비 10.2%의 수출신장을 바탕으로 1만437톤을 생산, 전년동기대비 7.1%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유럽쪽의 수출호조를 틈타 1/4분기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대반전을 기록했다.

B-Acid시장은 가격정체에도 불구하고 염료시장의 블루칼라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벤지딘계의 환경규제에 따른 상대적인 잇점과 패션변화를 바탕으로 96년 시장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22>

